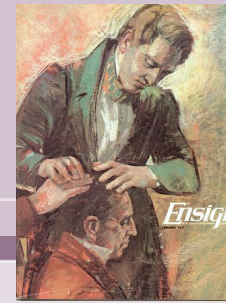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킵벌리 지역의 여섯 명으로 구성된
상호부조회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상호부조회 건물 건축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무용 공연을 기획함.

1956년에 헌납된 새로운 상호부조회 건물은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
상호부조회 잡지 편집자들, 그리고 성전 의상
작업자들의 의 업무 및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다.

벨 에스 스페포드 자매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할 당시 전국 여성
위원회 회장으로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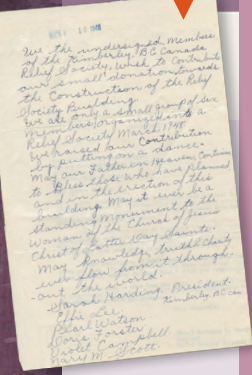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던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가
2,400여 명에서 수확한 미화 1,651,157달러
가치의 상호부조회 밑과 750,000달러의 자산
기금이 기록된 보고서를 제일회장단에게 전달.



1949

일본에서
첫 번째
상호부조회가
조직됨.



벨 에스 스페포드
1945



상호부조회 기념 접시 사진.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1956



상호부조회 건물 개관

1966

상호부조회
잡지의
스페인어판
창간.

1968



1970

상호부조회
잡지
폐간호.



바바라 비 스미스
1974

1978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자,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가족과 사회에
공헌하는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옹호함.

1980

1982

상호부조회
창립
140주년.

상호부조회, 청년, 초등회가
“여성에 대한 찬사”라는 주제의
행사를 공동 후원.



바바라 더블유 와인더
1984

벨 에스 스페포드 자매는 오랜 기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는데, 이때 상호부조회와 교회의 다른 보조 조직들은 중복되어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낭비를 줄이며, 세계적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교회의 내부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교회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어난 변화에는 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들의 재조정 및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보조 조직 은행 계좌 폐지 등이 포함된다.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권 형제님들과 하나 되어 일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시운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모세서 7:18 참조)

리브즈 자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하나님은 최대한 많은 자녀들을 데려오시고자 그 일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따라 남성의 힘을 활용하기도 하시고 여성의 힘을 활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선지자들과 어떤 식으로 함께 일하십니까?

버튼 자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당시 여성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셨듯, 오늘날 그분의 사도들 또한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 선지자들께서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항상 교회 자매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십니다. 저희 회장단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와 정기적으로 함께하며 경험하는 것들을 교회의 모든 자매님들이 보고 듣고 느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은 참된 제자들로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께 삶을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을 신뢰하십니다. 또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주 간증하십니다.

리브즈 자매: 저희는 자주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의견을 물으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은 저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공통된 목적을 바라보며 저희와 협력하십니다.

스티븐스 자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아시며,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지도자들과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경전에 나오는 주님의 모범을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들을 변호하셨고, 여성들을 배제하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린다 케이 버튼 자매가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를 만나고 있다.



않으셨으며,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일회장단이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과 평의회를 할 때면 종종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구주가 눈앞에 계시면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7. 영적인 권능과 성약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스티븐스 자매: 우리는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음으로써 영적인 권능을 얻습니다. 또한, 성약을 지킬 때도 영적인 권능을 얻습니다.

일요일에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도 우리는 영적인 권능을 얻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과 맺은 모든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분의] 영과 함께”하고자 노력합니다.(교리와 성약 20:77, 79)

버튼 자매: 니파이는 영적인 권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 ... 위에 내려움을 보았나니.”(니파이전서 14:14) 이 구절에 나온 성도들이란 당연히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니파이는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의 권능이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움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 즉 성약의 남성과